

현빈-하지원 거품 키스...“어찌나 부럽던지”

스포츠동아 선정 2010 연예계 ‘별난 시상식’

2010년 경인년도 바람 잘 날 없었던 한 해였다. 마약사건과 도박사건, 병역기피 논란이 있었고, 톱스타의 잇단 부음도 들려왔다. 하지만 소녀시대와 카라가 일으킨 신한류나, 한국의 브란첼리나 탄생 등 호뭇한 소식도 있었다. 2010년 연예계의 이슈를 스포츠동아 엔터테인먼트부가 수상자를 선정하는 ‘별난 시상식’ 형식으로 정리했다.

‘시크릿가든’서 여성팬 펠리게한 공로 ‘달달 키스상’
‘헐기열’ 신정환·‘눈물연기’ 최희진 ‘베스트 연기상’
“60초 뒤 공개”...두근두근 슈퍼스타K2 ‘애간장상’

베스트 연기상=신정환·최희진



‘헐기열’ 응급실 ‘인증샷’으로 베스트 연기상과 포토제닉상 2관왕에 오른 신정환, 스포츠동아DB

방송인 신정환과 작사가 최희진이 꼽혔다. 8월 말 필리핀 원정도박 의혹에 휩싸였던 신정환은 9월9일 “여행중 땀기열에 걸려 며칠 입원했다”며 ‘인증샷’을 올렸다가 거짓으로 드러나 망신을 샀다. 신정환은 이 ‘헐기열 인증샷’으로 포토제닉상도 함께 수상했다.

태진아-이투 부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은 작사가 최희진은 최고의 ‘눈물연기’를 보였다. 그는 9월7일 약물과다복용으로 입원한후 병원 환제어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태진아가 낙태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최희진의 허위사실 협박이 드러나 14일 1심 재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마이동몽상=타블로 학력의혹 ‘타진요’·조희문

‘소귀에 경 읽기’란 의미의 ‘마이동몽’상은 가수 타블로의 학력의혹을 제기했던 인터넷 카페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이하 타진요)와 곳곳이 사퇴압력을 견뎌낸 영화진흥위원회 조희문 전 위원장이 공동수상했다.

타블로의 미국 스탠포드대학 졸업에 의혹을 제기해온 타진요는 경찰수사로 타블로의 학력이 사실로 판명됐음에도 “조작됐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새로운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했다. 조희문 전 영진위원장도 정부를 비롯한 영화인들의 꾸준한 사퇴 요구에도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다 결국 11월 초 해임됐다. 그러나 조 전 위원장은 한국 영화계의 판가르기 분위기 때문에 부당하게 해임됐다고 반발했다.

달달 키스상=현빈-하지원

‘시크릿가든’의 현빈과 하지원은 카푸치노 거품 키스로 시청자들의 가슴을 떨리게 해 ‘달달 키스상’을 수상했다. 12일 방송분에서 현빈은 입가에 우유 거품을 문힌 채 카푸치노를 마시는 하지원의 턱을 잡고선 거품을 자신의 입술로 닦아냈다. 기습 키스 후 “티슈도 없고, 옷으로 닦을 수도 없잖아”라는 대사는 여성 팬들을 다시 한번 쓰러지게 만들었다. 이날 방송분은 25.1%(AGB닐슨미디어리서치)로 자체최고시청률을 기록했다.

애간장상=슈퍼스타K2

“60초 뒤에 공개됩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불쑥 튀어나온 이 한 마디는 올 해 시청자의 애간장을 무척이나 태우게 했다. 케이블TV 채널 Mnet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2’에서 탈락자를 발표할 때마다 했던 이 한마디는 시청자들을 허탈하게 만들며 최고 유행어로 떠올랐다. ‘슈퍼스

타K2’는 케이블 시청률로는 상상도 못했던 18.1%(AGB닐슨미디어리서치)를 기록하며 방송계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베스트 처방상=김성민



히로뽕과 대마초 흡연으로 4일 구속된 텔런트 김성민(사진)은 베스트 처방상을 받았다. 2007년 초부터 2년 간 조울증을 앓아온 김성민은 10월 스스로 히로뽕을 투여하고, 대마초도 피웠다. 검찰조사에서 개그맨 전창걸이 대마초 공급책으로 드러나면서 이른바 ‘김성민 리스트’도 탄생했다. 합합가수 크라운제이도 대마초를 피워 6일 불구속 입건됐다.

‘지못미’상=민호린·조여정·김민정·이시영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레드카펫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와 실수로 굴욕을 당한 민호린 조여정 김민정 이시영 등 여배우 4명에게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해)상이 주어졌다. 민호린은 10월2일 열린 ‘2010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레드카펫에서 가슴에 붙인 양면테이프가 카메라에 잡혔고, 김민정은 9월2일 2010 충무로국제영화제 개막식에서 집계편을 쏜 채 레드카펫을 밟았다. 이시영은 10월28일 한 패션쇼에 파우더가 얼룩덜룩 묻혀진 화장으로 나타나 경악하게 만들었고, 조여정은 10월 7일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서 바닥에 붙은 접착제로 인해 구두가 벗겨져 맨발로 걷는 쑥신한 상황을 맞았다.



꿀복근상=장혁

2010년 TV는 근육질 남성들의 복근대결의 장이었다. 특히 드라마 ‘추노’의 장혁(사진)은 오지호 한정수 등과 ‘힐벗은’ 채 등장해 여성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원빈도 영화 ‘아저씨’에서 거울 앞에서 머리를 깎는 장면에서 탄탄한 상반신을 드러냈다. 하지만 복근과 무술실력으로 ‘장혁의 재발견’을 안겨준 ‘추노’의 장혁에게 꿀복근상이 돌아갔다.

베스트 카리스마상=박칼린

9월 방송된 KBS 2TV ‘남자의 자격-남자 그리고 하모니’를 통해 유명해진 뮤지컬 음악감독 박칼린은 베스트 카리스마상을 받았다. 박칼린은 33명의 오페라합창단을 이끌고 전국합창대회에 나서는 과정을 통해 리더십과 온화한 카리스마로 큰 주목을 받았다.

수출역군상=소녀시대·카라

소녀시대와 카라는 신한류를 주도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수출역군상을 공동수상했다. 카라가 먼저 일본시장에 데뷔해 일본 음반차트 5위에 오르는 등 활약을 펼치자 곧바로 소녀시대가 데뷔해 오리콘 싱글차트 1위를 기록하는 등 오리콘 역사를 번갈아 갈아 치우는 선의의 경쟁을 벌였다.

정리 | 김원경 기자 gymmy@donga.com
편집 | 민성기 기자 min3654@donga.com

바로 이 장면!



부드러운 카푸치노 거품 키스로 시청자들의 가슴을 떨리게 해 ‘달달 키스상’을 수상한 드라마 ‘시크릿 가든’의 하지원과 현빈. 사진출처 | 방송 화면 캡처

■ 별난 커플상은 누구?



공개 커플을 선언한 뒤 더욱 사랑스런 커플로 발전 중인 김혜수(왼쪽)·유해진 커플. 스포츠동아DB

김혜수-유해진 커플 “볼수록 잘 어울리네”

연예계 소식 가운데 언제나 가장 뜨거운 관심을 모으는 것은 사랑으로 맺어진 커플들의 이야기. 올해에도 어김없이 그 관심의 시선을 집중시킨 커플들이 있다. 여기엔 말 그대로 ‘별난 커플’들이 있으니, 스포츠동아는 이들에게 ‘별난 커플상’을 준다.

● 가장 아름다운 커플상

SBS 주말극 ‘인생은 아름다워’의 송창의·이상우가 차지했다. 장편드라마 최초로 동성애 커플이 된 두 사람은 온갖 비난과 논란 속에서도 아름다운 사랑을 이어갔다.

다소 파격적으로 비칠 수도 있었지만 김수현 작가의 과하지 않은 대사 속에 어우러진 두 사람의 스킨십 장면은 두고두고 화제를 모았다. 특히 이상우의 극중 전 부인 송선미와 새로운 여자 김정화의 애정 공세 속에서 사랑을 지켜낸 아름다운 커플이었다.

● 가장 사랑스런 안티 커플상

올해 한국영화 최고 흥행작 ‘아저씨’의 원빈과 이연복 김새론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세상을 등진 채 살아가는 남자가 이웃집 소녀를 구하기 위해 세상 속으로 뛰어드는 이야기 ‘아저씨’에서 두 사람은 가장 멋진 커플의 앙상블을 이뤄냈다.

특히 10월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해 대중상, 대한민국 영화대상, 청룡상 시상식 등에서 ‘커플룩’을 선보이며 레드카펫을 밟아 취재진과 팬들의 카메라 플래시를 받았다.

원빈에 대한 가득한 애정을 품은 못여성들은 김새론에게 ‘질투’의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 같은 ‘안티’의 시선을 넘어 우정의 화합을 보여줬다.

● 볼수록 어울리는 스타 커플상

신년 벽두부터 세간의 집중적인 시선을 모은 스타 커플 유해진과 김혜수. 지난 2년여 동안 소문으로 나돌던 ‘교제’의 의혹(?)을 말끔히 씻어 내며 실제 공개커플을 선언했다. ‘미녀와 야수’라는 별칭으로도 불렸지만 이들은 서로 통한 예술적 감수성에 힘입어 성숙한 사랑을 나누고 있다. 이들에게 붙여진 별칭을 비롯, 보편 볼수록 세상 가장 잘 어울리는 커플로서 자신들의 사랑을 과시하고 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최경아 교수의 6색 건강요가

까치끼고 비틀면, 나도 S라인!

일부 주부들의 사치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다. 주부의 쇼핑충동증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백화점, 시장, 홈쇼핑에 이르기까지 일단 한 번 빠지면 마약만큼 빠져나오기 어려운 것이라.

특히 남편 출근시키고 아이들 학교 등교 후 아무 생각 없이 집 어떤 리모컨은 TV 속 백화점 채널을 가리킨다. 짹짹, 푹푹 푹푹 심장소리처럼 시간을 재촉하는 시계소리는 얼른 전화를 들어야만 할 것 같고, 상품을 지금 사지 않으면 큰 손해라도 보는 듯하다. 막상 택배로 받은 물건이 색 마음에 들지도 않아서 후회하다보면 다시 반품을 시키고 다음날 또 같은 일을 반복한다. 쇼핑 채널 블랙리스트에 올랐을지도 모르는 주부의 이름들...

그 뿐인가! 백화점 세일상품은 모조리 다 사야 직성이 풀리는 여성들도 있다고 한다. 50% 세일해서 구입한 상품이라 50%의 돈을 번 것 같은 느낌이라. 분명 50%를 소비한 것은 아는지 모르는지! 가장 경제의 중심을 잘 잡아야 할 주부들의 무책임한 쇼핑충동은 살림살이의 파탄을 가져온다. 마치 신체의 균형을 잃으면 건강이 흔들리는 이치와 같다고 하겠다. 건강과 살림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는 현실에 대한 자각이 필요한 게 아닐까.

1. 서서 오른발을 들어 중심을 잡고 왼다리를 접어 왼손가락으로 엄지발가락에 건다.

2. 무릎을 펴고 왼다리를 앞으로 쭉 뻗은 후 중심을 잘 잡는다. 5초 정지, 좌우 교대 3회 반복.

3. 양다리를 어깨넓이보다 넓게 벌리고 양손은 깍지를 끼어 위로 높게 들어올린다. 10초 정지.

4. 호흡을 내뿔면서 왼쪽으로 상체를 90도로 숙인다. 10초 정지.

5. 상체를 완전히 숙여 양손이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한다. 5초 정지, 좌우 교대 3회 반복.

※효과:
1. 중심을 잡는 능력이 생기며 균형감각을 통해 낙상을 예방한다.
2. 하체를 강화하며 탄력있는 다리라인을 만들어준다.
3. 옆구리 근살을 제거 하며 전신 피로 해소에 도움을 준다.

※주의: 2번 자세에서 무릎을 펴는 것이 어려우면 할 수 있는 만큼 다리만 들어올리고 초보자의 경우 오른팔로 벽을 잡고 수련한다.

글·동작 최경아

성명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
MBC해설위원 | 국민생활체육회 자문위원
저서: 100일 요가(결코 아깝지 않은 내 몸 투자)

월 오피스요가 | 화 치유요가 | 수 주부요가 | 목 다이어트요가 | 금 골프요가 | 토 부부요가